

한림대학교 교환학생 수학 보고서

저는 25년 1학기, 일본 나고야 시립 대학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교환 학생으로 선발된 이후, 제일 먼저 해야 했던 것은 서류를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일본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는 JLPT (어학 능력) 증명서,

COE(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복사본,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자격 외 활동 허가서,

마지막으로 학교 입학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교환 학생에 선발되면, 교류센터 쪽에서 파견 전 작성해야 하는 서류를 주시고, 기간 내 제출하면 일본 대학 쪽에서 검토 후 COE 와 학교 입학 허가서가 나옵니다.

COE 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여권 등 개인 정보 증명 서류, 재학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은행 잔고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나고야 시립 대학 같은 경우 은행 잔고 증명서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구하는 학교도 있으니,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COE가 없으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고,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면 출국할 수 없기 때문에

COE는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在留資格認定証明書 (CoE) !!

【在留資格認定証明書】

在留資格認定証明書番号 :

氏名 ●●●●●●

性別 : 女 female

国籍・地域 : 韓国 KOREA, REPUBLIC OF

生年月日 :

日本での職業及び勤務 (通学) 先等 : 名古屋市立大学

在留資格 : 留学 (1年) Student(One year)

交付年月日 : 2025/01/29

交付者 : 名古屋出入国在留管理局長

신청 과정 중 가장 예상치 못했던 점은, 생각보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발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학 기숙사 대신 셰어하우스에 입주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미리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COE 발급일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입주일을 확정 짓지 못해 다소 혼란스러웠습니다.

다행히도 2월 초에 발급될 수도 있다고 들었던 COE가 1월 말에 나와, 비교적 여유롭게 출국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출국을 앞두고 있는 분들께는 입주 일정, 비자 발급 기간 등을 미리 고려하여 준비하실 것을 꼭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교환학생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거주지 선택입니다.

저의 경우, 나고야 시립대학 기숙사의 시설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후기를 접하고, 셰어하우스 입주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셰어하우스는 Share-Leaf 라는 사이트를 통해 계약했으며, 집주인과 함께 거주하던 분들 모두 매우 친절하고 쾌적한 환경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입주했던 셰어하우스의 사진입니다.

저는 4층에 거주했으며, 층마다 화장실, 샤워실, 세탁기, 전자레인지, 냉장고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셰어하우스의 가장 큰 장점은 단연 공용 주방입니다.

프라이팬, 도마, 식칼 등 요리에 필요한 대부분의 주방용품이 비치되어 있어 따로 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항공권 예약은 가능하면 준비 과정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비자가 아직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권을 먼저 예약할 경우, 비자 발급이 지연되면 항공권을 부득이하게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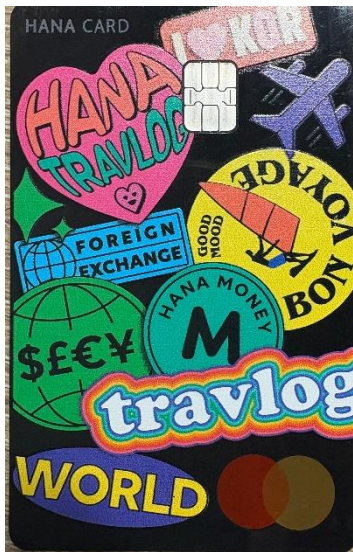
저는 아시아나 항공으로 예매했습니다. 저가항공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화물 가능 무게가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출국할 때 짐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수화물 무게가 많은 항공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공권 예매까지 완료 했다면, 본격적으로 짐을 싸야 합니다.

짐을 챙길 때 꼭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로 여권과 COE, JLPT 성적 증명서, 파견 대학의 입학 허가서입니다. COE 는 입국심사 때 보여달라고 하시기 때문에 꼭 종이로 인쇄해서 가져 가시길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해외 결제용 카드입니다. 저 같은 경우 트래블로그 카드와 트래블월렛 카드를 챙겨갔습니다. 환전도 앱에서 바로바로 할 수 있고, 현금 인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만들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왼쪽이 트래블로그 체크 카드이고, 오른쪽이 트래블 월렛 체크 카드 입니다.



세번째로는 도장입니다. 일본에서 통장을 만들 때 도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도장을 미리 만들만 가는 것이 좋습니다. 도장은 일본 용 사이즈가 있고, 도장 업체에 요청하면 알아서 제작해주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한자 성과 영문 성, 이렇게 두개 만들어 갔습니다.

그 외, 돼지코, 상비약, 전기 장판은 꼭 챙겨 가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일본에 입국했다면, 제일 먼저 주소 등록을 해야합니다.

자신의 집 주소의 해당하는 구약소에 방문해서 주소등록을 진행해주면 됩니다.

이때 재류카드를 꼭 지참해야 하는데, 재류카드는 입국 심사 때 발급받으면 됩니다.

주소 등록의 서류 작성 방법은 직원분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주소 등록을 하면 재류카드 뒷면에 본인의 주소가 적힙니다.

주소 등록을 완료 했다면, 다음으로는 핸드폰 개통과 통장 개설 입니다.

먼저 핸드폰 개통은 여러 통신사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 UQ 모바일에서 개통했습니다.

통신사는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통신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핸드폰을 개통하기 위해서는 여권과 재류카드, 그리고 신용카드가 필요합니다.

이때, 신용카드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저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알아보던 중, 승인이 가능한 체크카드도 몇 종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은행의 비바 플러스 체크카드로 개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인이 안되는 체크카드가 더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지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핸드폰은 eSIM 으로 개통했습니다.

통장 개설은 외국인이라 개설할 수 있는 은행이 한정적입니다.

제일 개설하기 쉬운 은행은 유초 은행입니다. 유초 은행은 일본 우체국에서 관리하는 은행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쉽게 개설이 가능합니다.

통장 개설을 할 때에는 여권, 재류카드, 도장을 꼭 지참해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카드 입니다. 나고야에서는 주로 나나코라는 교통카드를 사용하지만, 어떤 교통카드를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코카 교통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계속 이코카를 사용했습니다. 교통카드는 역에서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아이폰의 경우, 애플페이처럼 교통카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를 추가하면 핸드폰만으로도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저도 교통카드를 핸드폰에 추가해서 핸드폰만 들고 다녔습니다.

일본 대학에서의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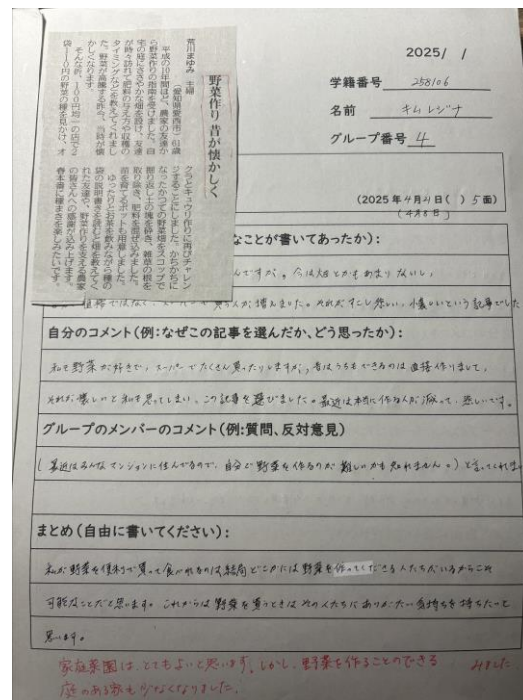
저는 나고야 시립대학교 경제학부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일본으로 교환학생을 온 유학생은 필수적으로 일본어 수업을 선택해 수강해야 하며, 저도 일본어 수업 4 과목과 전공 수업 3과목, 총 7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수강한 일본어 수업은 일본어 상급 1, 프레젠테이션, 일본어 리딩·리스닝, 토론 수업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일본어 상급 1 수업은 JLPT N2 이상의 일본어 실력을 요구하는 수업으로, 전반적인 수업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N1 수준의 단어 시험과 일본 신문 읽기, 청해 시험 등 다양한 평가가 있었으며, 암기해야 할 내용도 많아 꾸준한 학습이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강했던 수업의 유인물입니다. 이렇게 신문 기사를 읽고 요약하는 연습,

이 기사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는 활동을 합니다.

또, 뉴스 기사를 듣고 일본어로 적어보는 활동도 합니다.

따라서 일본어 상급 수업은 일본어 실력이 어느정도 있어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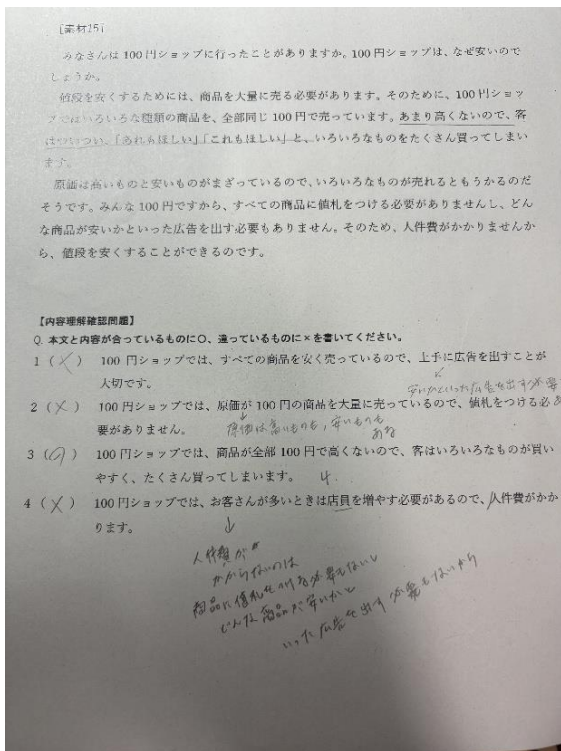
다음은 프레젠테이션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일본어로 발표를 해보는 수업으로, 총 두 번의 발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주제가 정해져 있었고, 자신의 나라를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두 번째 발표는 자유 주제였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 흥미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저는 일본어로 말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발표력도 함께 키울 수 있었습니다. 수업 중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돌아다니며 발표 자료(PPT)의 오타나 수정할 부분을 세심하게 피드백해 주셨습니다. 저는 자유 주제로 다이어트 보조제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였고, 발표 준비와 연습을 통해 전문적인 표현력과 청중을 설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세번째로 일본어 리딩·리스닝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10문장 정도의 짧은 글을 읽고, 서로 짝을 지어서 글을 요약해서 말하는 연습을 합니다.

또, 긴 문장을 듣고 문제를 푸는 연습도 진행합니다.



종이에 있는 문장을 3분 읽고, 안보이게 덮습니다. 그 후 기억력만으로 상대방에게 글을 요약해서 전달해야 합니다.

문제를 풀 때도, 왜 이 문제가 맞는지, 왜 틀린지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수업은 일본어 수업 중에서 가장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수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지 않고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지만, 익숙해지면서 요령도 많이 터득했습니다.

이 수업은 N3 정도의 어학수준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어 토론 수업입니다. 토론 수업은 단순히 토론만 하는 수업이 아니라 토론을 하는 과정도 모두 배웁니다. 토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규칙은 무엇인지, 토론을 할 때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토론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를 모두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수업은 N3 정도의 어학수준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는 전공 수업입니다. 전공수업으로는 기업론, 금융론, 입문 경제학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먼저 기업론 수업입니다. 기업론 수업은 자신이 기업의 오너가 된다고 생각하고, 주제를 정해서 가상으로 기업을 만들어 보는 수업입니다.

저 같은 경우, 'AI 를 활용한 직업 컨설팅 어플' 을 주제로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素材抽出局面の進め方 **プラス素材とマイナス素材の抽出**

③反復作業法：反復して重要と思われるデータに○をつけ
拾い上げていくデータの選択方法です。
最も重要なデータが3~4つになるまで繰り返して下さい。

ランク	素材データ	グループ
	②1行に1データを書いていきます。	a
○	必ず文章のカタチにしてください	b
○○		a
	現実に関わっていることで	c
○○	●明るい未来につながる事実を中心に	b
	●気になる現状も押さえて(数データ)	d
○	データ出しします。	d
○○○		b
○○	文章の末尾は「〜であった」	a
	「〜である」となります。	c
○○○		d
○	① ② ③ ④	d

④データの意味内容をよく味わって、意味内容が同じと思われるものに
a. b. c. d. e. などの同じ記号を与え、グループ(分類)します。(4~5ぐらい)

【本文】 ⑦本文と心象図の意味を味わって一文に統合表現します。

2 / 5 素材抽出 局面

⑧本文の意味内容をよく味わって、
心象図に表現します。
●何かに例えて考える
(山登りや樹や船の航海等)
●本文を構造化する

①まず、記録項目を記入します。
② 目的
③ 課題
④ 内省取材
⑤ 簡易情報集約法
⑥ テーマ
⑦ 理念設定局面の
本文を要約して
書きます。

⑤
a グループを統合してA
b グループを統合してB
c グループを統合してC
d グループを統合してD
の文章を作成します。
その中で最も重要と思われる
記号に○をつけます。

【本文】

A ●●●●●●●●●● (統合文)
B ●●●●●●●●●● (統合文)
C ●●●●●●●●●● (統合文)
D ●●●●●●●●●● (統合文)

1	素材抽出局面	出発テーマ：自分を短くことから始まるキャリア選びを広めたい。	グループ
2	素材データ		B
3	「自分に向いている仕事かわからない」と悩む高校生が約6割にのぼる(○○調査より)		D
4	就活生の多くが「適職診断テスト」で性格傾向を自己認識するようになっている		E
5	「AIに頼りすぎるのは不妥」という声がSNSでも多数見られる		D
6	幸せに働いている人ほど「自分に合った雇用形態を選んだ」と回答している(調査データ)		A
7	学歴ではなく「得意なこと」で採用する企業が増えている(中小企業白書より)		C
8	NBTや16タイプ診断など、質問型性格テストの利用者が年々増加している		D
9	若者の間では「やわらかい雇傭」の雇用形態が広がっている		A
10	AIは「便利だけど怖い」と感じる人が一定数いる(意識調査より)		B
11	情報過多の時代において、適路の選択に迷う学生が増えている		A
12	「自分らしい働き方をしたい」と答える若者は80%以上にのぼる(厚労省調査)		B
13	フロントでは面接を導いて、個人のスキル診断と職業提案をオンラインで提供している。		D
14	自分に合った職業に就く人が増えると、早期離職の減少や離職定着率の向上につながると思われる。		C
15	個人の強みや特性が活かされることで、組織全体の生産性やチームワークが向上するという調査結果もある。		C
16	自分のキャリア・アンカーが尊重される仕事に就くことは、長期的な職業満足やウェルビーイングの向上につながると思われる。		A
17	シャインの理論によれば、キャリア・アンカーが満たされない職場では早期離職やバーンアウトが起きやすいという。		C
18			
19			
20	かぶつてのサイトはないのか？自分なりの差別を探す		
21	事項診断の質問の具体化		
22			
23			
24			
25			

本文：自分に合った仕事を選べる仕組みを通じて、個人と社会の両方に良い変化をもたらしたい。

【心象図】

自分に向いている仕事かわからない人が多い ← 課題(自分の問題)

↓

質問を通して自分の強みや価値観を言語化する ← 自己理解のプロセス

↓

AIが傾向を分析し、職業を提案する ← 補助的なAI分析

↓

納得して選べる仕組みができる ← 自立的な選択構造

↓

自分らしく働ける「社会」が実現する ← ビジョン・理想の社会

本文(各グループの集約、素材データ内のキーワードを統合して文章化)

A: 理想の状況や、目指す幸せな働き方に関するもの
B: 道筋に迷う、不安がある、情報過多など現実の悩みに関するもの
C: 経路のあり方や機会の不平等など、社会的な構造に関するもの
D: AIや質問設計など、具体的なテクノロジーや支援の仕組みに関するもの
E: AIとの向き合い方や、自己診断・倫理観に関するもの

실제로 제가 수업한 워크 시트입니다.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소재 데이터를 작성해야 하는지 그 단계에 대해 배우고,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현했다면, 페어 인터뷰를 통해서 서로의 보완점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 수업은 일본어로 모든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분들에게만 추천하는 수업입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공 두번째로는 금융론 입니다.

금융론 수업은 금융 거래, 환전, 외화 등 금융에 관련된 지식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영어로 된 자료로 수업을 하고, 모든 설명은 일본어로 진행됩니다.

수업이 끝나면 연습문제를 열어 주시는데, 그 연습문제를 매주 풀어서 내는 것이 시험입니다.

Issues on Commitment

- Economic inefficiencies arise when there is a lack of commitment regarding contractual content.
 - Soft-budget constraint ソフト予算制約 - 個別企業が民間の存在の継続を望みつつも、
ホールドアップ問題 - 契約した取引条件に相手側が反し、
 - Hold-up problems

Re: Spot and Future Markets

Premium

Price

0

Strike price

Handwritten notes in Japanese:
[約定] 約定価格
→ この価格で
買い手が
決定する。
・ 実際は受け渡した
現物の存在が
・ 現物の価格は
為替法則に従って
↓
現物相場が下落した
→ 決済可能。
・ 今現物の価格
が割に安い
現物の
割に安い現物相場
の発生を期待する

이 수업은 전문적인 용어와 표현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일본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수강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연습문제 또한 단순히 인공지능(AI) 도구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수업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만 풀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어렵다고 느꼈던 수업이며, 집중하지 않으면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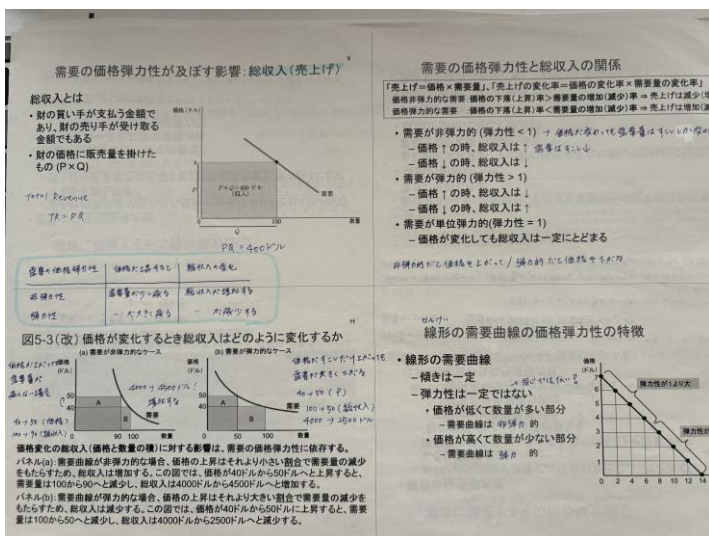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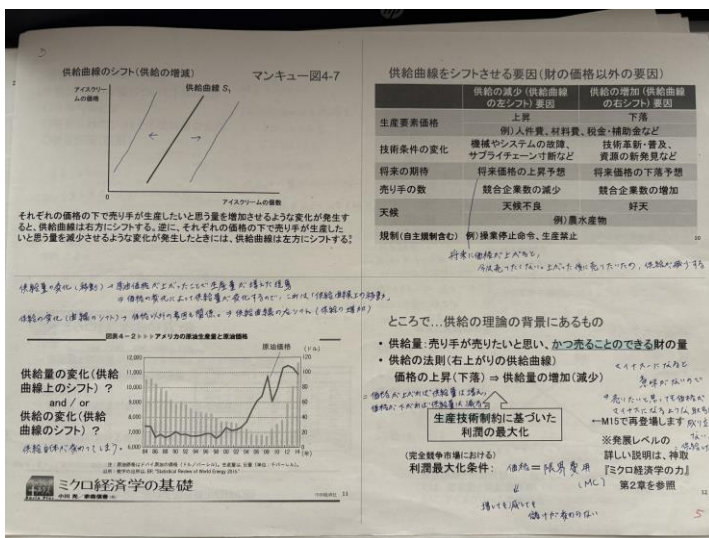
전공 수업 중 마지막은 입문 경제학입니다.

이 수업은 경제학의 기초 개념을 학습하는 강의로, 경제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림대학교에서 글로벌비즈니스학과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한국에서 이미 수강한 경험이 있어 비교적 수월하게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기존에 배운 내용 외에도 새로운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일본어로 진행되는 수업이다 보니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강한 전공 수업들 중에서는 가장 쉽게 익힐 수 있었던 과목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들었던 수업 자료입니다. 항상 수업 전에 수업 자료를 파일로 올려주십니다.

저는 항상 프린트를 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캠퍼스 생활 정보

나고야 시립 대학교는 과에 따라서 캠퍼스가 나뉩니다.

저는 경제학부 이기 때문에 타키코 캠퍼스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수업을 들은 3호관입니다.



여기에서 입문 경제학과 일본어 상급 수업을 들었습니다.

경제학부 수업은 모두 3호관에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는 2호관입니다.



여기에서는 금융론, 기업론, 일본어 토론, 프레젠테이션, 리딩·리스닝 수업을 들었습니다.

1호관과 2호관이 가장 크고, 대부분의 수업은 2호관에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는 식당입니다. 캠퍼스 안에 소테츠 식당이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있어서 자주 이용했습니다.



식당 내부의 사진입니다.



매일 메뉴가 바뀌고, 메뉴도 식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유용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테리아 입니다. 제가 캠퍼스 내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테리아 안에서는 파스타, 런치 메뉴, 커피 등 카페 음료, 파르페 등을 판매합니다.

여름이 되면 아사히 볼을 기간 한정으로 판매하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2층도 있고, 매우 시원해서 공부할 때 항상 이곳에서 공부했습니다.



제가 자주 먹었던 아사히 볼과 딸기 초코 파르페 입니다.

둘 다 정말 맛있으니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서관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공부는 테리아에서 했기 때문에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지는 않았지만, 시설적으로 정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가 가입한 동아리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밴드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모두 음악에 진심이고, 활동하면서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동아리 내부에 항상 사람이 있어서 많이 촬영하지는 못했지만, 방은 두개로 나뉘져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라이브에 한번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밴드 동아리 이외에도 정말 많은 동아리가 있으니 학교 생활하면서 동아리는 꼭 가입해서서 많은 사람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나고야에 온다면 꼭 가봐야 하는 관광지 입니다.

첫번째로는 사카에 입니다. 사카에는 나고야에서 가장 큰 번화가 입니다. 쇼핑물도 굉장히 많고, 맛있는 음식점이나 카페, 이자카야도 아주 많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되게 예쁜 곳입니다.



이 사진은 사카에 중심쪽에 있는 추부 미라이 타워 입니다.

낮에도 예쁘지만, 밤이 되면 조명이 켜지면서 정말 예쁜 곳입니다.

실제로 관광객 분들이 많이 사진을 촬영하는 곳입니다.

타워 옆에 음식점들도 많기 때문에, 사진을 찍은 후 음식점에서 밥을 먹기도 합니다. 사카에에 오신다면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진은 추부 미라이 타워 옆에 위치하고 있는 오아시스21 이라는 곳입니다. 타워에서 5분정도 걸어가면 바로 보입니다.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막상 올라가보면 평평합니다.

아마도 착시효과로 기울어져 보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 오스 상점가 입니다.

오스 상점가는 나고야 전통 재래 시장입니다. 맛있는 곳도 정말 많고, 빈티지샵이나 중고 유카타도 판매 하고, 딸기 모찌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오스 상점가에 오신다면 꼭 드셔보셨 으면 하는 두가지 음식을 소개합니다. 먼저 딸기 모찌입니다. 식감도 정말 쫄득하고 맛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단연 1등은 미타라시 당 고 였습니다. 이 당고를 먹고 싶어서 오스 상점가에 간 적도 있습니다.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비 및 지출

저는 기숙사에 살지 않고 셰어하우스에 살았기 때문에, 정확한 기숙사의 비용은 잘 모르지만,

제가 살았던 셰어하우스는 월세가 38000엔, 공익비가 13200엔 이었습니다.

공익비는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모두 포함된 가격입니다.

총 51200엔을 월세로 지출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레스토랑 알바를 했습니다. 월세는 한국에서 알바해서 모아서 간 돈으로 지출했고,

나머지 생활비는 전부 알바비로 충당했습니다.

매달 75000엔 정도 알바비로 받았고, 알바비로 핸드폰 비용과 보험료, 교통비와 식비를 해결했습니다.

이번 교환학생은 부모님께 지원을 받기보다는 제 힘으로 해쳐 나가고 싶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매달 받는 용돈은 없었습니다.

日用品(ダイソー)	2,640円
日用品(スギ薬局)	1,853円
食費(コンビニ)	422円
食費(福の屋)	860円
交通費	210円
交通費	210円
食費(タキテリア)	880円

 入力 カレンダー グラフ 設定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일 가계부를 작성했습니다. 가계부를 매일 작성하니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었고, 효율적으로 돈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계부 어플을 찾아봤지만, 家計簿 라는 어플이 가장 좋았습니다. 자주 지출하는 카테고리도 설정할 수 있고, 매일 쓴 총 금액을 바로 보여주기 때문에 하루에 얼마큼 지출을 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평소 옷이나 화장품에 관심이 많아, 의류는 주로 GU 라는 브랜드를 자주 이용했습니다.

GU는 유니클로의 자회사 브랜드로,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뛰어나 일본에서 가장 자주 옷을 구매한 브랜드였습니다.

화장품의 경우에는 주로 **드럭스토어**를 이용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좋아했던 브랜드는 캔메이크 (CANMAKE)로 파우더나 볼터치, 섀도우가 굉장히 예쁜 브랜드입니다.

일본은 드럭스토어가 매우 잘 발달되어 있어, 화장품뿐만 아니라 의약품, 섰크림, 세탁 세제, 섬유유연제 등 다양한 생활용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생활 필수품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어 유학생에게는 매우 유용한 쇼핑 장소였습니다.

자기평가

이번 일본 교환학생 경험을 통해 얻은 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넓어진 시야입니다.

한국에서만 생활하다가 일본에 와보니,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알게 모르게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금전 관리 능력의 향상입니다.

한국에서는 한 번도 가계부를 써본 적이 없어 불필요한 지출이 많았고, 금세 돈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매일 가계부를 작성하며 예산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소비 습관이 개선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일본어 실력의 비약적인 향상입니다.

일본에서 수업을 듣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본어를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한 덕분에 이제는 일본인과 막힘 없이 대화할 수 있고, 대부분의 표현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 주도적인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교환학생을 준비하면서 거주지를 스스로 선택하고, 비자 발급 등 행정 절차도 직접 진행하며, 생활비 관리까지 모두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특히 셰어하우스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공동체 생활 속에서 배려와 협동심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일본어와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언젠가 일본에서 직접 살아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이번 교환학생은 그 꿈을 현실로 만든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처음 일본 대학에서 수업을 들을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도, 전공 수업을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수업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인 만큼 반드시 해내겠다’는 마음으로, 수업 전 미리 업로드되는 자료를 미리 읽고 모르는 단어와 표현을 따로 정리해 공부했습니다.

수업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끝나고 나서 교수님께 질문하며 적극적으로 따라갔습니다.

남들은 단순히 개념만 이해하면 되었지만, 저는 일본어와 개념을 동시에 이해해야 했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수업에 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점차 일본어 강의가 익숙해졌고,

지금은 일본 학생들과 거의 다름없이 강의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해내고자 하면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환학생 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값지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며, 제 인생에서 절대 잊지 못할 한 학기였습니다.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추억은 쉐어하우스에서의 추억입니다.

쉐어하우스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추억도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파스타 파티도 하고, 직접 요리를 만들어서 다같이 먹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이야기 할 수 있었고, 또 많은 감사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일본 대학교에서도, 쉐어하우스에서도 너무나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일본 교환학생을 꿈꾸고 있다면, 쉐어하우스에서 지내보는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귀중한 경험이 가능했던 것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뜻하게 맞아준 일본의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이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이에게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